

2021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같이

기 도 / 가족 중 혹은 인도자

성경 봉독 / 빌립보서 4:4-7 / 다같이

말씀 나눔 / 인도자

오늘은 설날 명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 정말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합니다. 젊은이들은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
럼 어렵고,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가 불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 모릅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도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
럼 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
다.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을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려운 때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감사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빌립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
기가 참 어려운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쉽지 않고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짜증이 나거나 힘들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7절을 보면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돌보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 도 / 인도자

새해 가족들의 소망과 기도제목을 서로 이야기 하고 인도자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 송 /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다같이

주 기 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